

참고도서목록

- Bode, J./Flemming, W./Kaufmann, H.B. (Hrsg.), Konfirmandenzeit von 11 bis 15? : Praxisberichte - Modelle - Perspektiven, Gütersloh 1985.
- Dienst, K., Konfirmation - Historisch, in : TRE, 437-445.
- Gossmann, K., Formen der Frömmigkeit von Konfirmanden, in : Comenius-Institut (Hrsg.), Handbuch für die Konfirmandenarbeit, Gütersloh 1984, 160-175.
- Müller, Th., Konfirmation - Hochzeit - Taufe - Bestattung, Stuttgart 1988.
- Neidhart, W., Konfirmandenunterricht in der Volkskirche, in : Comenius-Institut (Hrsg.), Handbuch für die Konfirmandenarbeit, Gütersloh 1984, 176-192.
- Neidhart, W., Konfirmation - Praktisch - theologisch, in TRE/ 445-451.
- Onnasch, K., Konfirmandenarbeit/Firmunterricht, in : Bäumlner, C./Mette, N. (Hrsg.), Gemeindepraxis in Grundbegriffen, München 1987, 257-268.
- Otto, G., Konfirmation und Konfirmandenunterricht, in : Otto, G. (Hrsg.), Praktisches Theologisches Handbuch, Hamburg, 1975, 2. Aufl., 418-427.
- Steck, W., Konfirmandenunterricht und Konfirmation, in: Wintzer, F. (Hrsg.), Praktische Theologie, Neukirchen-Vluyn 1985, 2. Aufl., 194-211.
- Wegenast, K., Konfirmandenunterricht und Konfirmation, in : Adam, G./Lachmann, R. (Hrsg.), Gemeindepädagogisches Kompendium, Göttingen 1987, 134-354.

도덕 및 인습적 일탈행위에 관한  
아동의 상호작용적 개념 발달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ractive Conceptions  
Regarding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조교수 김 상 윤  
Assistant Professor,  
Sang Yoon Kim, Ed. D.

서 론

1980년대 우리나라의 도덕교과서가 개편되면서 반영된 바 있는 Kohlberg의 인지적 도덕 발달이론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많은 관련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여 보다 보완적인 이론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하나는 Turiel (1983)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 및 인습개념의 독립적 발달이론이다. Turiel 등의 영역구분모형(domain distinction model)은 Kohlberg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이 갖는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한계점 등을 극복하게 해 주지만 이 역시 도덕과 인습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송명자 등 (1987)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들도 서구의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도덕과 인습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들어났다. 예컨대 서구의 아동들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명백하게 사회인습적인 것으로 지각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아동들은 이를 도덕적인 사태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영역을 구분하느냐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역구분의 차이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 과정의 규명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도덕적 개념은 타고난 것인데 비해 인습적 개념은 내면화 된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개념이 발달과정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규명은 도덕교육실제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에 실시한 횡단적 자료 가운데 국민학교 2학년 10명의 집단이 규칙 의존적인 반응을 다른 집단 즉, 그보다 어린 유치원 집단과 그보다 나이가 많은 국민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집단에 비해 가장 높게 보인 점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이들 집단 가운데 당시 국민학교 2학년 아동들을 4년 후 다시 만나 동일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과연 그러한 경향성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종단적으로 검토하며 아울러 보완적 횡단연구자료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이 도덕 및 인습영역에서 동일한 변화를 보이지도 아울러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타당한 아동의 도덕 개념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며 나아가 영역구분모형이 갖는 도덕교육에의 적용가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이론적 배경

### 1) 영역구분 모형

Kohlberg의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은 도덕성이 문화적으로 전수된 도덕규범의 학습을 의미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장면에 대한 반응유형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진보주의 교육관과 일치하지만 진보주의 교육이론이 간과했던 몇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지적인 사고판단이 도덕성의 철학적 개념 및 도덕성 발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도덕성 발달은 질적으로 상이한 단계를 거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도덕성의 발달이 아동의 사고나 문제해결을 촉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Kohlberg, 1972). 이 중에서 도덕판단의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에 속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적 조작의 획득을 의미하며 이러한 논리적 조작은 비개인성, 理想性, 및 보편성을 포함하는 형식적 사유의 특성을 점차로 반영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험적 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Kohlberg의 독특한 이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예컨대 인습이후수준에 달했던 고등학생들이 그 후 단계2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 역행현상(Kohlberg & Kramer, 1969)을 보인다는 한 단계씩의 이행보다는 수준간의 이행(Holstein, 1976)을 나타낸다는 단계5와 단계6의 원리적 도덕성들의 실증적 자료가 적다는 점 등(Shweder, 1982)이 지적되었다. 특히 Shweder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대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관점을 비판하였다(1982, 293).

인습수준과 인습이후수준간의 계열성의 엄격한 구분을 더 이상 주장하기 보다 이 양자간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는 시도가 Turiel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Nucci와 Turiel(1978)은 사회인습적 개념이 미분화된 상태로 부터 분화되어 나왔다는 Piaget(1932)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보다는 이미 어린 아동기에서 부터 모든 규칙들

이 같게 취급되지 않고 있으며 그 원천들이 구별되거나 서로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으로 부터 구성되어 나올 수 있다고 보면서 인습수준과 인습이후수준 즉, 사회인습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이 이미 어릴 때 부터 변별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발달적 또는 계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Smetana(1981)등의 연구에서 '다른 아이를 때리는 것'이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대답한 아동이 3,4세에는 평균 74%, 7,8세이후 20세까지는 평균 94-100%였던 반면 '장남감을 정해진 자리에 두지 않는 것'이 규칙이 없어도 나쁘다고 대답한 학생이 3,4세에는 평균 34%, 7,8세이후 20세까지는 평균 0-27%로 나타나 전자의 도덕적 개념과 후자의 인습적 개념을 이미 변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Turiel(1983, 71)은 사회인습이란 개인을 사회체제 속에서 상호작용하도록 조화시켜 주는 행동적 일치로서 사회상황적 맥락에 관련되는 반면에 도덕성은 正義(justice)에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였다. 이와같이 아동이 도덕 및 사회인습간의 영역을 변별한다고 보는 Turiel의 관점은 몇가지 점에서 Kohlberg의 이론에 대한 비판점들을 극복하게 해 준다. 첫째, 사회인습적 개념이 도덕적 개념 이후에 나타난다는 Kohlberg의 도덕판단 발달단계의 계열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둘째, 사회문화간의 보편적인 도덕성과 상대적인 사회인습을 구분함으로써 보편성에 대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 즉, Turiel은 문화간의 도덕개념을 비교하기 보다 문화내의 사회적 지침(social orientation)의 동질성, 일관성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 도덕판단과 행위간의 격차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태를 어떻게 개념지우느냐에 따라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영역간 상호작용이론

이와 같이 Turiel은 아동의 구성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점에서 Dewey, Piaget, Kohlberg 등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사회인습적 영역과 도덕적 영역이 엄격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것이다. Turiel(1983)은 초기 연구에서 도덕 및 사회인습의 영역구분에 초점을 모았으나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양 영역의 조화가 어떤 개인, 환경간의 상호작용과정으로 형성되어 가는지의 발달과정을 추적하는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설명이 명확히 이루어질 경우 개념과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즉, 여태까지 양자의 구분을 엄격하게 한 '강'이론에서 나이, 상황, 영역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약'이론으로 옮겨가면서 아동은 단순히 외부적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호작용적 관계를 가지며 사건과 개인이 갖는 개념과의 관계 및

도덕, 사회인습 양 영역간의 혼합에 관련된다고(1985, 36)보게 된 것이다.

이미 Turiel과 Smetana(1984, 2)는 사회적 사고와 행위, 문화내용 등이 서로 나란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간의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사회판단이 서로 다른 영역들의 발달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며 어느 특성의 유일한 방식만을 취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다. 이왕의 도덕적 개념과 사회인습적 개념들을 구분한 것은 이러한 개념들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도덕판단이나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교할 만 하다고 Turiel 등(1984, 24)은 말했다. 즉, 특성의 음악적 목적을 향하여 변해가는 맥락 속에서 여러가지 부분들이 들어나기도 하고 종속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회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조직과 도덕적 판단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영역혼합이나 영역혼동의 현상은 영역간의 갈등이나 조화로 분석됨으로써 상황적 맥락 속에서 각 개인들이 이끌어 가는 영역간의 해결지침(the subjects' domain orientation)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도덕판단에 위배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 사태를 도덕적으로 아니면 사회인습적으로 보는가 하는 영역인식(domain identification : 1984, 31)에 달려 있다면 개인이 사회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발달과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결정과 행동 및 추리의 영역들이 단순히 결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당면한 상황들은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 여러가지 사회판단 영역의 조화를 요구하며 이러한 것들이 상호맥락의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해석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덕성을 인습과 구분할 수 있는 준거로 내용의 심각성(as more serious than)을 중시한 Shweder의 입장에 대하여 Turiel은 반대한다. 그 대신 Killen(1985) 등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모든 도덕문제가 모든 사회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 양 그리고 영역 상호간의 작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Stoddart와 Turiel의 연구(1985)에서도 5세에서 13세에 이르기 까지 성역할의 이탈을 도덕적 이탈 만큼 중요시 취급한 'U-shaped' 곡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Shweder 등은 성인이 아동에게 인습과 도덕의 구분을 학습시켜 주는 것으로 보지만 Turiel은 성인의 가르침이 아동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며 문제는 아동이 이들 사건에 대한 경험을 다른 경험과 어떻게 관련지우며 상호작용해 나가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상호작용이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첫째, 여러가지 다양하고 변화하는 경험이 아동의 초기에 영향을 준다. 둘째, 아동은 사회경험에 상보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셋째, 초기경험은 상호작용들의 도덕 및 사회 인습체제의 선행 조직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는 등이다. 일찌기 Bell(1968)은 부모들이나 교사들은

아동의 성향과 기질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해간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아동들도 부모의 의사전달에 반응하면서 구성적 상호작용을 위한 '세마'들을 발달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Turiel(1973)은 사회인습개념에 대한 주요변화이론에서 이들 각 수준들을 확신(affirmation)과否定(negation)의 연속적이며 재평가적인 평형화 과정에 일치시키고 있다(1983, 106).

<표a> 사회인습 개념의 주요 변화

수준	연령	특 징
수준1	6-7세	사회적 일치의 피상적 묘사로서의 인습 인습은 행동상의 일치이다. 존재하고 있는 무엇이다.
수준2	8-9세	수준의 부정 경험적 일치는 충분하지 않다. 인습적 행위는 임의적인 것이다. 아직 인습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구조나 기능의 일부로 보지 못한다.
수준3	10-11세	사회의 규칙체계로서의 인습 인습의 고수는 구체적 규칙들과 권위적 기대들에 기초한다.
수준4	12-13세	수준3의 부정 인습은 규칙과는 상관없이 임의적이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인습은 사회적 기대일 뿐이다.
수준5	14-15세	사회체제로서의 인습 사회구조에 대한 체제적 개념의 출현. 인습은 일치, 고정된 역할, 및 고정된 위계조직위에 세워진 사회체제속의 규정들이다.
수준6	17-18세	수준5의 부정 인습에의 일치가 사회체제의 유지기능으로 기여한다고 보지 않는다. 인습들은 습관적 사용을 통해 존재하는 사회적 기준일 뿐이다.
수준7	18-25세	사회적 상호작용의 일치로서의 인습 사회체제의 상호작용과 조직을 촉진하는 사회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인습의 형태로 공유하는 지식이다.

Turiel(1983, 103)의 요약

즉, <표a>에서 나타나 있듯이 수준2, 4, 6에 대한 설명은 발달에 있어 부정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회판단의 일면이다. 이는 발달적 이행이 자기구성적 특성에 필수적이라는 Turiel(1984)의 주장에 기초한다. 그의 구조주의적 설명은 과거의 것에 새 것을 단순히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재통합을 의미한다. Turiel은 영역구분모형에도 몇 가지 국면이 있다고 했다. 즉, 1)인습기대, 2)도덕, 3)도덕인습의 분리, 및 4)도덕인습의 조화 등 네 가지 범주의 영역혼합이 있으며 이 가운데 도덕인습의 조화 범주가 나이경향을 갖는 것으로 발달양상을 띤다고 했다(1983, 114). 이러한 설명이 명확히 이루어 질 경우 개념과 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Turiel도 지적했듯이 인습, 도덕 양자의 분리 보다 '양자 조화'(coordinated relation of moral conventional components)의 범주에서 나이 경향을 보인 점은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좋은 단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습적 개념에서의 발달과정은 인지적 도덕발달과정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예컨대 수준2, 4, 6의 시기는 8-9세, 12-13세, 그리고 17-18세의 기간으로서 인지적 도덕발달의 단계1에서 단계2, 단계2에서 단계3, 그리고 단계4에서 단계5에로의 이행기에 대략 해당되는 것이다.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것은 이같은 재통합기의 특징을 Turiel은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긍정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당화가 형성되기까지의 공백기간에 기왕의 도덕습관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선행연구

6세미만의 어린 아동들도 도덕성과 사회인습을 구별하고 있음을 서구(Nucci, 1981; Turiel, 1983 등) 및 우리나라(Song, Smetana, & Kim, 1987; 송명자, 김상윤, 1987)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몇 가지 점에서 서구의 아동들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예컨대 서구 아동들은 '인사'란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며 단지 그러한 규칙이 정해져 있으므로 따라야 하는 사회인습적 행위양식에 불과하다고 보는 반면 우리나라 아동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규칙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나쁜 도덕적 행위양식으로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화(moralizing) 현상은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졌다(송명자 등, 1987, 141).

그러나 이러한 도덕화 현상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문화내에서도 아동의 도덕발달과정상 일어나는 일시적 영역혼동의 현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송명자 등(1987)은 이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선행연구(Song et al., 1987)의

결과에서 도덕영역(남을 때리는 행위,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빌린 돈을 안 갚아 주는 행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중 '나쁘다' 반응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와 사회인습영역(손가락으로 음식 씹어 먹는 행위,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는 행위, 국민학생이 귀걸이 하는 행위, 복도에 신을 아무렇게나 벗어 놓는 행위)중 상대적으로 '나쁘다' 반응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는 행위'만을 선택하여 이러한 영역혼동현상에 어떠한 변인이 작용한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문화권에서 예상되었던 상황속에 등장하는 대상인물의 사회적 신분, 연령, 남여성차 등의 요인 중 연령 변인이 도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송명자 등, 1987, 147). 예컨대, '할아버지께 자리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꼬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나쁜 행위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의 가치판단과 도덕적 규범 및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사회적 신분과 성차가 이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판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반면 연령만이 아직도 이들에게 강력하게 도덕적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송명자, 1988, 237). 그리고, 이러한 사회 인습영역의 도덕화 현상은 교육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6세 이전부터 아동이 이미 획득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만약 규칙이 없다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서 '나쁘다' 반응점수가 국민학교 2학년에 일시적으로 떨어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송명자, 1988). 이를 두고 유치원 아동집단에서는 교육에 의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이미 형성된 것이었으나 학교교육에 들어 오면서 인위적인 규범화하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로 빚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과연 그러한 결과를 일반화시켜 해석할 수 있는지 아니면 2학년 집단외에 다른 집단에서도 규칙의존적 반응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종단적 자료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명자 등(1987)의 연구에 참여있는 아동 중 국민학교 2학년 아동 10명을 4년후 그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될 때에 다시 만나 동일한 질문을 한 종단적 자료와 결과의 일반화를 돕기 위해 유치원, 국민학교 6학년, 그리고 대학 3년 각각 남녀 5명씩 모두 30명의 반응을 수집된 종단적 자료를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

#### 대 상

##### 1) 종단연구

1986년 10월에 연구에 참여했던 당시 부산시 Y 국교 2학년 남5 여5 계10명의 아동 가운데 3년 9개월 후 다시 구한 남1 여5 계 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학년 당시 평균연령은 8.25(.29)세 였으며 6학년 현재의 평균연령은 11.95(.29)세 였다. 이후 2학년 때를 8세 집단 6학년 때를 12세 집단으로 부르기로 한다.

##### 2) 횡단연구

종단자료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돕기 위해 부산 시내 거주하는 유치원생, 국민학생, 그리고 대학 3년생 남녀 각각 5명씩 계 30명의 횡단적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평균연령은 각각 5.76(.46)세, 11.71(.41)세, 및 20.59(.93)세 였다. 이후 각각 6세, 12세, 및 21세 집단으로 부르기로 한다.

####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양보를 하지 않는 도덕적 일탈행동과 인사를 하지 않는 인습적 일탈행동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야기 내용의 대상 즉, 상황 속에 등장하는 양보나 인사의 대상인물이 아저씨와 아주머니, 할아버지와 꼬마, 그리고 선생님과 청소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규칙에 대한 의존성 정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수집은 유치원 아동과 국교 2학년생은 개별면접을 하였으며 국교 6학년생 이상은 지필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에게 제시한 양보와 인사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할아버지와 꼬마가 대상으로 등장하는 도덕상황과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수는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수는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모른 척 앉아서 갔습니다.

영기는 버스를 타고 좌석에 앉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에서 꼬마가 혼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기는 꼬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모른 척 앉아서 갔습니다.

질문1-1. 대수가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나쁜 일일까요?

(예, 아니오)

질문1-2. 만약 그러한 예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부터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나쁘다, 괜찮다)

질문2-1. 영기가 꼬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나쁜 일일까요?

(예, 아니오)

질문2-2. 만약 그러한 예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부터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나쁘다, 괜찮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예' 또는 '나쁘다'라고 대답했을 때 2점,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때 1점, 그리고 '아니오' 또는 '괜찮다'고 대답했을 때는 0점을 주어 '나쁘다'반응점수로 하였다.

#### 통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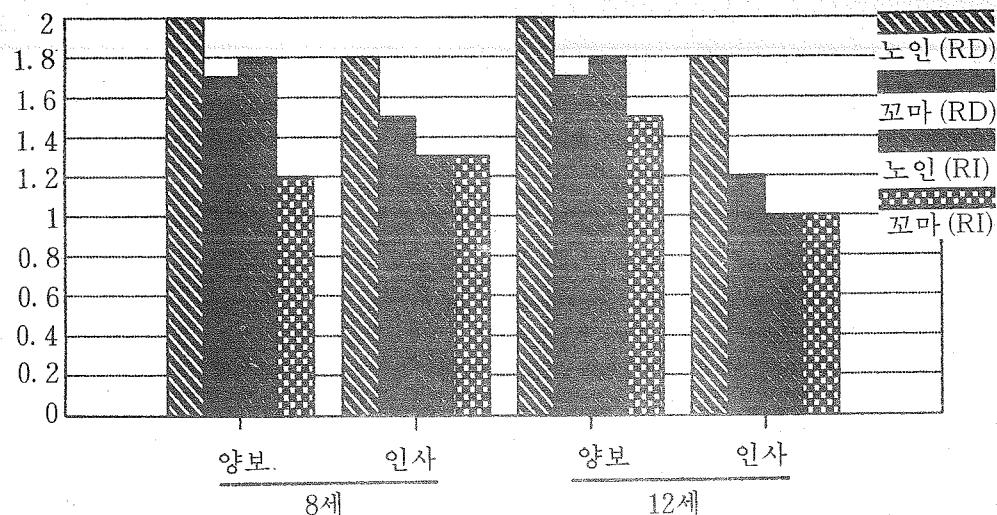
두가지 상황 변인과 대상인물의 세 가지 변인 즉, (영역(양보, 인사) + 규칙(의존, 독립) \* (지위(선생님, 청소부) + 연령(할아버지, 꼬마) + 성별(아저씨, 아주머니)의 변인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나쁘다'반응점수의 평균득점을 종속변수로 하여 표준화 중다상관 회귀계수( $\beta$ )를 구하여 유의미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다시 반복 t검증하여 비교하였다.

#### 연구결과

<표1> '나쁘다' 반응점수에 대한 상황 속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위 및 규칙의 유무, 상황의 영역, 피험자의 연령 등 제 변인들의 중다상관계수(종단적 자료)

	8세		12세		전체	
	Beta	t	Beta	t	Beta	t
대상자 성별	.068	.601	.000	.000	.030	.344
대상자 연령	.272	2.404*	.179	1.323	.217	2.523*
대상자 지위	.091	.801	.179	1.323	.138	1.605
대상자 유무	.826	7.285***	.765	5.635***	.782	9.071***
상황의 영역	-.013	-.116	.145	1.070	.074	.861
피험자 연령					-.108	-1.258
R	.819***		.877***		.81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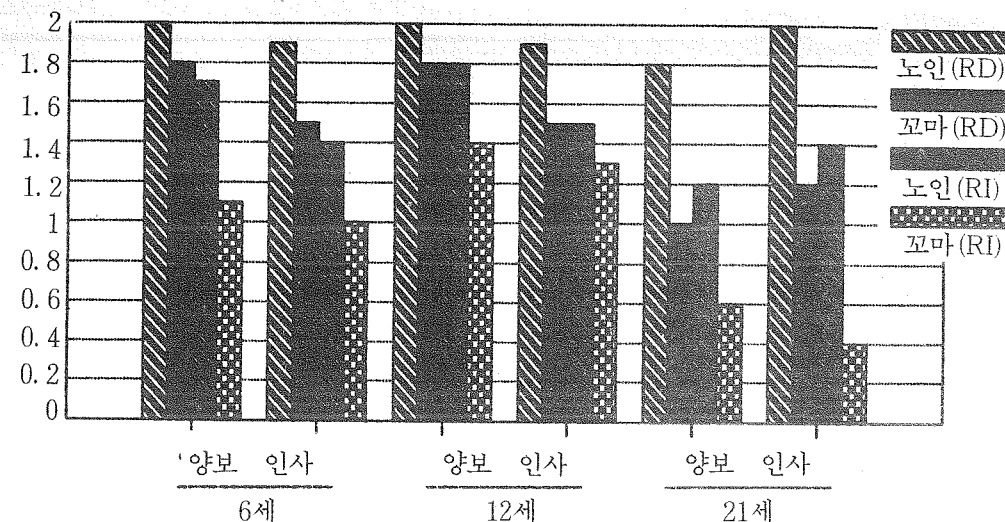
<도1> 상황 속 대상자의 연령, 규칙유무, 및 상황영역에 따른 '나쁘다' 반응점수의 4년 간 종단적 변화(RD : 규칙의존 RI : 규칙독립)

아동의 나이가 8세 때에는 양보(도덕영역)에서 규칙유무간에 유의한 차이(반복  $t=2.875 > t_{5, .05}=2.015$ )가 있는 반면 4년 후 12세가 되었을 때에는 인사(인습영역)에서 규칙유무간에 유의한 차이(반복  $t=2.236 > t_{5, .05}=2.015$ )가 나타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영역에 대한 변별이 Smetana 등이 주장하는 것 처럼 어린 연령에서 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 즉, 양보 및 인사 대상으로서의 할아버지와 꼬마간의 변별은 8세에서 부터 하였으나 4년 후 12세가 되어서는 이러한 변인이 '나쁘다' 반응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 오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 하다.

<표2> '나쁘다' 반응점수에 대한 상황 속 대상자의 성별, 연령, 지위 및 규칙의 유무, 상황의 영역, 피험자의 연령 등 제 변인들의 중다상관계수(횡단적 자료)

	6세	12세	21세	전체
	Beta	Beta	Beta	Beta
대상자 성별	.144	.261*	.034	.115
대상자 연령	.366**	.285*	.540**	.382***
대상자 지위	-.069	.000	.236*	.070
규칙의 유무	.792***	.672***	.662***	.651***
상황의 영역	.079	.261*	.000	.092
피험자 연령				-.306***
R	.886***	.818***	.887***	.831***

\* $p < .05$  \*\* $p < .01$  \*\*\* $p < .001$



<도2> 상황 속 대상자의 연령, 규칙유무, 및 상황영역에 따른 '나쁘다' 반응점수의 세 연령집단간 횡단적 비교(RD; 규칙의존 RI : 규칙독립)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집단에서는 도덕영역(반복  $t=2.714 > t_{9, .05}=1.834$ ) 및 인습영역(반복  $t=2.250 > t_{9, .05}=1.834$ ) 모두에서 영역혼동 현상이 있었으나 12세 집단에서는 인습영역에서만 차이(반복  $t=2.377 > t_{9, .05}=1.834$ )가 나타남으로써 종단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인 21세 집단에서는 도덕영역(반복  $t=3.000 > t_{9, .05}=1.834$ ) 및 인습영역(반복  $t=2.174 > t_{9, .05}=1.834$ ) 모두에서 규칙유무에 따른 차이가 남으로써 영역혼동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도덕상황 속에 등장하는 대상인물의 연령 즉, 양보 및 인사를 해야 할 대상이 할 아버지인지 꼬마인지에 대한 변별은 6세 집단(반복  $t=2.450 > t_{9, .05}=1.834$ ) 및 21세 집단(반복  $t=4.311 > t_{9, .05}=1.834$ )에서 나타났으나 12세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꼬마에 대한 '나쁘다' 반응점수가 전체적으로 적은 것을 의미하며 대학생은 '나쁘다'의 반응점수가 나머지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특히 12세 집단에 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반복  $t=2.169 > t_{9, .05}=1.834$ )가 있었다. 이는 대학생의 경우 영역간, 대상자의 연령간, 규칙의 유무간을 뚜렷히 변별하고 심지어는 나머지 어느 집단에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하는 등 도덕영역이든 인습영역이든 아동에 비해 분석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논 의

송명자 등의 횡단적연구(1987)에서 국교 2학년 집단이 특별히 규칙의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증거는 본 종단적 자료를 통하여 추적해 본 결과 확인 될 수 없었다. 그 보다는 규칙의존적인 반응이 8세 때에는 도덕적 영역(양보)에서 있었다가 4년뒤 11세가 되어서는 인습적 영역(인사)에서 나타난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도덕적 개념이 Smetana 등이 주장하는 생득적 경향성을 띠다가 보다는 교육이나 훈련에 영향을 받은 발달의 증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Kohlberg의 도덕판단발달 수준을 Rest의 척도로 5년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자의 자료분석(1989, 59)에서도 인습적 도덕성에 해당하는 단계4의 도덕성이 국민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이르는 동안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단계2가 감소하고 단계P(단계5와 단계6)가 증가하는 대치양상을 확인한 바 있듯이 도덕적 습관을 정당화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동들은 처음에는 그 것이 본능적인 것이든 교육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든 직관적으로 도덕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Shweder 등(1981, 288)이 주장한 것 처럼 4세에서 6세의 아동들은 그들의 도덕적 지식에 대한 반성적 이해(reflective understanding)는 없더라도 이미 직관적 도덕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 아동의 직관적 도덕성이 있다고 해서 Smetana나 Turiel 등이 주장하는 것 처럼 이것이 교육이나 훈련의 결과에서 형성된다고 믿는 인습적 영역과 굳이 구별하여 도덕적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구분은 아동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는가 하면 성인들도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불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세의 아동들도 '남을 때리는 것'(도덕적 영역)은 법이 없어도 나쁘다고 하면서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인습적 영역)은 법이 없다면 괜찮다고 하여 양자를 구분한다. 그러나 아동들은 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영역내에서도 주관적 책임(의도)과 객관적 책임(결과)을 부과함에 있어 '훔치는 것'(도덕적 영역)과 '부모 불순종'(도덕적 영역)간을 직관적으로 변별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김상윤, 1986, 70)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적인 영역구분은 아동의 도덕적 내지 인습적 사고발달의 역동성을 무시하게 되기 쉬우며 실제로 이러한 영역구분이 잘 되지 않는 영역중복(domain overlap)이나 영역혼란(domain blurring)현상이 있는 것이다. 그 후 Turiel이 이들을 이차적 현상(secondary order phenomena)으로 개념화 한 것(1983)은 일단 이 현상을 발달의 양상으로 볼 수 있게하는 개연성을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는 이 현상이 최초에는 인습적 성격을 띠던 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켰다. 예컨대 줄서기, 차례 기다리기 등은 명백하게 사회질서를 위한 인습적인 문제이지만 이러한 것을 어

기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덕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아동들에게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주면서 가르치는 것과 우선 습관부터 몸에 배이게 하는 방법에서 만약 후자의 양육방식을 취했다면 이 아동은 우선 이러한 사태를 인습적인 것으로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이와같은 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차적 현상'이라는 개념은 아동이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몰랐던 도덕적 결과를 깨닫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Piaget도 아동들이 비교적 일찍 도덕적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동의 양육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의도는 무시한 채 컵 1개를 깬 경우 보다는 컵 15개를 깬 것에 화를 더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Piaget, 1932, 135).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도덕성은 형제나 친구들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아동이 부모의 '...하지 말라'는 가르침 등을 통해 형성된 도덕적 양심이나 의무감 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을 이해하려면 인지적 성숙과 아울러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때 진정한 도덕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Piaget의 주장은 엄격한 양육방식 하에서 자란 아동이 국민학교 3학년 이전까지는 허용적 양육방식 하에서 자란 아동에 비해 도덕판단에서 결과를 중시하는 객관적 책임을 우세하게 적용하다가 3학년 이후 부터는 의도를 중시하는 주관적 책임을 사용함에 있어 양집단 아동간에 차이가 없어진다는 연구자(1983, 18)의 자료분석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아동의 도덕발달은 형식적 교육경험이 시작되면서 또래와의 사회적 경험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는 도덕성의 구조를 강조한 반면 도덕성의 내용을 간과해 왔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도덕성의 내용이 상이한 상황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점(Kohlberg, 1981, 70)에 있다. Peters(1981, 96)는 Kohlberg의 이론의 도덕습관의 형성에 의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어린 아동에게 먼저 일정한 행위유형을 성인에 의해 상벌을 통해 익힌 다음 차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reason)이 도덕적 습관을 완전히 대치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도덕교육이 교수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아동에게 있어 도덕사태에 대한 정당화는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학습된 규칙을 그와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 잠재력의 범위는 크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교육에 있어 어린 아동에게도 도덕행위의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해줌으로써 그들의 규칙에 대한 합리성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하여 아동들이 그들의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세련시켜 나가는데 대한 과정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모든 집단이 규칙의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규칙의존성이 도덕적 영역에서 인습적 영역으로 옮겨가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달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별능력의 발달도 불구하고 가장 연령이 높은 21세 집단에 이르면서 도덕 및 인습 양 영역 모두에서 일탈행동에 대해 '괜찮다' 반응점수가 높게 나온 점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도덕성이란 근본적으로 습관적 덕목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합리성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임을 Peters(1981)가 지적하고 있듯이 도덕사태에 대한 정당화의 수준이 발달된 것 만으로 도덕성의 바람직한 발달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꼬마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아는 사람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비록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닐 지라도 '나쁜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러한 일탈행동에 대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Kohlberg를 비롯한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는 이를 두고 그 행위라는 도덕내용보다 그 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정당화 즉, 도덕구조를 중시하였지만 실제적 도덕행위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도덕구조의 전이력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Kohlberg가 상황에 따른 일반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도덕적 내용을 간과했으나 우선 도덕적 습관으로서의 행위가 있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당화가 어떻게 발달해가는지 알아야 하며 이를 기초로 그러한 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밝는 것이다. 예컨대 Turiel이 주장하듯이 사회인습개념 변화에서 종정을 특징으로 하는 수준 2, 4, 6 즉, 불평형 내지 과도기적 이행기를 거치는 공백기간이 있다면 그동안 일어나는 도덕습관의 포기 내지 약화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는 그것이 도덕개념이든 사회인습개념이든 영역구분의 능력보다는 통합적 발달과정을 파악하여 Turiel이 제시하는 것과 같은 종정을 특징으로 하는 과도기가 어디에 있으며 이 공백기간 동안 도덕 습관의 약화없이 어떻게 다음 수준의 정당화로 이어나가도록 할 것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결 론

비교적 어린 나이의 아동들도 도덕적 개념과 인습적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도덕사태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명료하지 못하여 영역혼동이나 혼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Turiel은 이를 이차적 현상이라고 불렀다. 이 개념은 동일한 사태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으로 문화적 차이 등을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문화권에서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겪게 되는 개념의 발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4년간의 종단적 자료와 횡단적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들이 동일한 사태를 연령의 증가에 따라 도덕적 개념에서 인습적 개념으로 그 변별의 양상을 달리함을 확인하였다. 아동들이 어떤 개념을 도덕적인 것으로 보다가 인습적으로 보는 등 정당화의 수준이 발달하는 이행기는 Turiel이 사회개념의 변화에서 지적인 것 처럼 이전의 수준을 부정하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이왕의 도덕습관을 약화시키거나 폐지시킬 가능성이 있다. 도덕적 개념이 세련되어 가는 반면 전반적으로 약해져 가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일탈행동에 대한 금지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개념들의 이행기적 특성과 관련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관한 더욱 명료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윤, 어머니의 엄격한 훈련이 미취학 아동의 도덕판단발달에 미치는 영향, 동래여자전문 대학 논문집, 1983, 314-333
- 김상윤, Kohlberg의 도덕발달 단계이동에 대한 종단연구, 부산교육학연구, 1985, 제2집, 81-94.
- 김상윤, 도덕내용 심각성에 대한 아동의 직관적 변별력, 교육학연구, 1986, 제24집, 제1호, 63-74
- 김상윤,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에서 단계별 특성에 따른 도덕성발달 경향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1989.
- 송명자, 아동의 도덕성발달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한림정수봉박사회갑기념논총, 1988, 227-242.
- 송명자, 김상윤, 아동의 도덕적 사태에 있어서의 사회인습적 요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987, 140-149.
- Durkheim, E. Moral Education. N. Y. : The Free Press, 1925.
- Kohlberg, L.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1.
- Nucci, L. P. Conceptional development in the moral and conventional domain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1982, 1, 93-122.
- Peters, R. S. Moral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London : Georgy Allen & Unwin, 1981.
- Piaget, J.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 Y. : Free Press, 1965(1932).
- Shweder, R. A., Turiel, E., & Much, N. C. The moral intuitions of the child. In



- J. H. Flavell, & L. Ross (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Smetana, J. Prosocial events and transgressions in the moral and societal domai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Boston, April 1980.
- Smetana, J. Preschool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rules. *Child Development*, 52, 1333-1336.
- Song, M. J., Smetana, J., & Kim, S. Y.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1987, 23, 557-582.
- Turiel, E., & Smetana, J. Social knowledge and action: The coordination of domains.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ity, Moral Behavior, and Moral Development*. N. Y. : Wiley, 1984, 261-282.

# Shinto Shrine Issue of the 1930's in the South Kyung Sang Province

—Especially concerned with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 Contents

1. Introduction-Political Situation in general
2. Exaction of Shrine Worship
3.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and Shrine Issue
4. Shrine Issue in the South Kyung Sang Province
5. Resistance and the Anti-Shrine Worship Movement
6. Conclusion

Lee, Sang Gyoo\*

## 1. Introduction-Political Situation in general

The 1930's began with a political upheaval in Japan. It was to set the subsequent political and military course of the Far East, and drastically affect the fortunes of the Korean church and the life and work of the foreign missions in Korea. That is to say the course of Christianity in Korea was mingled inextricably with political developments. During the 1920's a brief period of conciliatory policy toward Korea was adopted but the rise of Japanese militarism in the 1930's, which coincided with the Shinto shrine worship, again subjected the nation to severe oppression. Particularly offensive to the Christians was the matter of Shinto shrine worship.

In November 1930 powerful forces in the army, navy and secret nationalistic

\*Associate Professor of Church History, Kosin College, Busan, Korea.